

+ 임석태 · EBS 스튜디오중계영상팀

캠코더 촬영

모델명 HDC-SD20



이미지 제공 : 파나소닉



[영상 1]



[영상 2]

캠코더 촬영은 컷을 여러 개로 나누기보다 [영상 1, 2]처럼 다가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팔로우 해주는 경우가 많다. 다가오는 동안 20초 정도가 소요되지만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말소리 등이 살아 있어 지루하지 않다. 주인공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. 이러한 경우 촬영자는 망설이게 된다.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끊지 않고 팔로우 할 것인가 일단 컷을 나누고 다음 컷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촬영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.

[영상 2]에서 충분한 홀드 없이 바로 가리키는 부분으로 카메라가 바로 따라간다면 편집하기가 자연스럽게 않다. 또한, 하나의 샷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.



[영상 3]



[영상 4]

[영상 2]의 위치에 주인공이 도달하였을 때 넉넉하게 홀드를 해주어, [영상 1, 2]가 한 장면이 되게 하고, [영상 2]가 안정적인 컷 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. [영상 3]은 주인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컷 후 따로 촬영해준 것이다. 캠코더 촬영에 있어서 [영상 2]에서 컷 한 후 [영상 3]을 끊어서 정확히 촬영해 줄 수 있다면, 촬영 실력이 향상된 것이다.

[영상 4]는 [영상 1~3]이 이루어진 공간을 넓게 보여 주어 이곳이 어디인가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준다. [영상 4]는 [영상 2, 3]을 포함한 타이트한 그림으로 처리 할 수도 있지만, [영상 4]처럼 아주 넓게 처리하여 한꺼번에 넓은 공간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영상이 시원해져서 좋다. 캠코더의 영상 구성에서 앞의 방법만 적용해도 많은 상황에서 좋은 구성이 가능하다.



[영상 5]



[영상 6]

[영상 5]는 장면이 바뀌는 부분이다. [영상 5]의 상황은 캠코더 유저들이 아주 많이 접하는 상황이지만 촬영시에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. 주인공이 빠르게 걷기 때문에 구도를 잡기도 쉽지 않다. 촬영자는 뒷걸음으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 촬영해 줄 수는 없고, 10초 정도만 [영상 5]의 구도를 유지 한 후에 프레임 아웃으로 처리해 준다. [영상 6]은 [영상 5]를 프레임 아웃 후에 촬영한 장면이다. 한 장소에서 사이즈와 각도를 달리한 두 개 이상의 컷은 기본으로 만들어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.

역광, 측광 이용



[영상 7]



[영상 8]

[영상 7, 8]은 [영상 5, 6]의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다. [영상 7]은 나뭇잎을 역광으로 촬영한 것이다. 노출 자동인 상태에서도 [영상 7]처럼 타이트한 장면의 역광은 잘 표현된다. 측광이나 역광을 이용한 촬영은 영상의 깊이를 더해 준다.



[영상 9]



[영상 10]

[영상 9]는 역광을 이용해 인물을 촬영하였다. 캠코더의 자동노출 로도 역광은 잘 표현된다. 순광보다는 역광이나 측광이 영상의 깊이감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역광이나 측광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.

[영상 10]은 뒤쪽의 광선이 밝고 앞이 어두워 원근감이 잘 표현되었다.



[영상 11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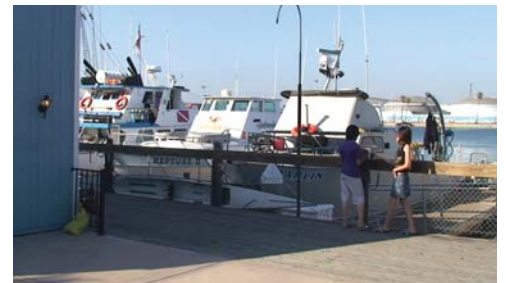
[영상 12]

[영상 11, 12]는 측광으로 촬영되어서 영상의 입체감이 있다. [영상 12]는 자연스럽게 측광 상태가 되어, 촬영하면 바로 측광으로 표현 되는 경우이고, [영상 11]은 측광을 선택하여 촬영한 경우이다.

[영상 11]의 다음 장면으로 주인공의 얼굴을 순광으로 촬영해 주어도 좋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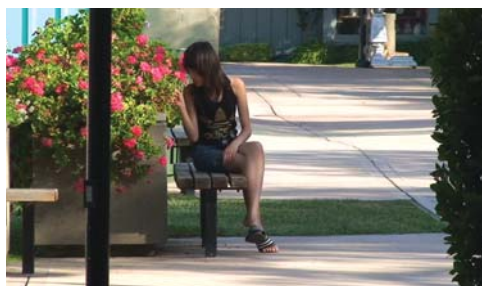


[영상 13]



[영상 14]

[영상 13]은 인물의 뒤편에서 광선이 들어와서 헤어라인이 잘 표현되었다. 얼굴부분의 노출이 다소 부족한 듯 하여도 코 부분에는 광선이 들어가서 얼굴 또한 입체감 있게 보인다. 촬영하면서 무심코 측광이나 역광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역광이나 측광으로 촬영하면 영상의 입체감이 잘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자신 있게 촬영하면 더 좋은 영상이 될 것이다.



[영상 15]



[영상 16]

[영상 15]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영상의 입체감을 만들어 주었다. 캠코더의 영상도 스틸사진으로, 한 컷 한 컷의 이미지를 표현 하듯이 촬영해 줄 수도 있다. [영상 15]처럼 좋은 광선이 되었을 때는 한 컷의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길게 홀드해 주어도 좋은 그림이 된다. [영상 16]도 같은 구도를 길게 유지하였다.

여행과 촬영



[영상 17]



[영상 18]

[영상 17~25]는 캘리포니아 해안이다. 여행하면서 촬영하는 것은 촬영보다는 일행들과 먹고 관광하는 것이 우선이라, 일 할 때처럼 전념할 수는 없다. 그래서, 촬영자가 편안하게 여행지를 걸어가며 주인공이 잠시 멈췄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을 빠르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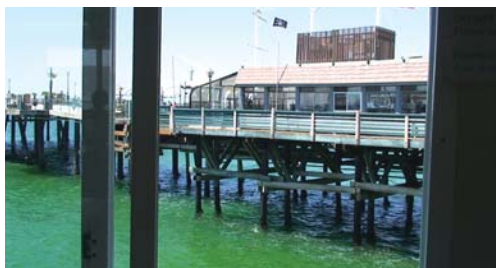


[영상 19]



[영상 20]

[영상 19]처럼 주인공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는 같이 빨리 걸으면서 촬영한다.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주인공들을 세워놓고 촬영하지만, 캠퍼디는 연속적인 동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같이 걸어가면서 촬영하게 된다. [영상 20]처럼 주인공들이 걸음을 멈췄을 때 배경 위주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담아준다.



[영상 21]



[영상 22]



[영상 23]



[영상 24]

[영상 21~24]는 식당 창가로 갈매기가 날아와서 주인공이 디카로 촬영하고는 자랑하는 모습이다. 식당 안의 모습 등을 촬영하지는 않아도 순간순간 재미있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는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. [영상 22]처럼 타이트한 영상은 편집시 영상을 배열하는데 도움을 준다.

전시회 촬영



[영상 25]



[영상 26]



[영상 27]



[영상 28]



[영상 29]



[영상 30]

[영상 25~30]은 SD 영상으로, 주인공이 꽃 전시회를 구경하는 모습이다. 이런 경우에는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. 인물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전시회의 꽃에 눈길이 간다. 화려한 꽃을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은 지나친 워킹을 삼가하고 [영상 27]처럼 클로즈업이나, 풍성한 꽃들의 그림을, [영상 28, 30]처럼 워킹을 자제하고 정교하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.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담고자 많은 패닝과 줌 등을 사용하면 나중에 꽃을 자세하게 표현한 정제된 영상을 얻을 수 없다. 볼거리가 많고, 담고자 하는 영상이 다양하더라도 촬영자는 침착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안정된 화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.